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Why? 사전

소확행


이철원

'소확행(小確幸)'.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2018년 우리 사회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사서삼경, 삼강오륜에나 나올 듯한 한자어를 꼽았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지만 단어 자체는 낯설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등장한 말이란다. 이 단어가 어쩌다 20여년을 돌고 돌아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로 소개됐을까.

하루키의 소확행부터 찾아봤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사소하고 소박하다.

이 소소한 일상은 어디에나 있어 보인다. 프랑스의 '오캄(Au Calme)', 스웨덴의 '라곰(Lagom)', 덴마크의 '휘게(Hygge)'. 최근 미국 브루클린에선 '마이크로 산책(micro walks)'이 소확행이다. 산책 코스를 줄이고 구석구석을 세심히 관찰하는 방식이다. 공원에 잔뜩 깔린 클로버 속에서 어제는 찾지 못했던 네잎클로버의 바로 그 '한 잎'을 발견하는 행복이다. 이 소소한 행복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마음껏 누리기는 어렵다. 당신은 주말 동안 방에 틀어박혀 이불 덮어쓰고 귤 까먹으며 만화책 보는 행복을 즐기고 싶어할지 모른다. 하지만 직장 상사와의 등산, 산적한 업무에 떠밀린 주말 근무로 시간을 뺏기기 일쑤다. 올해 트렌드라니 소확행을 한번 찾아보기는 하지만 나오는 건 한숨뿐.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위로를 되새김질한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We cannot be happy every day, but happy things happen every day)!" 디즈니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가 들려주는 말이다.

이정구 기자

– 조선일보 2018년 2월 3일

이 기사를 3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기사의 색칠된 부분을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